

영광군, '불갑사 약전차'로 침체된 국산차 시장에 박차

불갑사 약전차 발굴 및 산업화 용역 중간보고

영광군은 '불갑사 약전차 발굴 및 산업화 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21일 영광군청에서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용역은 불갑사 약전차에 관한 것으로 영광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차인 약전차를 새롭게 발굴·계승하여 기존 영광의 콘텐츠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용역이다.

약전차는 세종실록지리지의 '보

공'란에 영광의 작살차로 표기된 것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왕에게 올린 진상품이었다.

약전차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약효를 나타내는 동진모양의 차라 뜻으로 녹차를 이용한 떡차로 여러 가지 한방재료를 혼합하여 만든다.

기존의 발효차와는 다르게 떡차로 만들어 발효를 시키는 특징이 있어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이 가

능하며 효과나 미적인 측면에서 구세대와 신세대를 충분히 매료시킬 만하다는 게 학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광군에서는 약전차를 통해 차문화의 전통계승과 관광자원으로서 융·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락자산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후적으로 차 생산에 적합한 환경과 문화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잠재되고 있는 국산차 시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나주시, 2019년 청년농업인 교육 및 간담회 개최

맞춤형 영농교육, 현장컨설팅, 애로·건의사항 수렴



나주시는 21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2층에서 청년 농업인 50여명의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 간담

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 창업농, 40세 미만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인턴제

참여농가 등 청년 농업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실한 농업경영체 성장을 위한 맞춤형 영농교육, 현장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한국농업경영인나주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나주시연합회, 나주시4-H연합회 등 농업관련 단체 임원 및 관계자, 청년농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농업 경영 포부와 계획을 상호 공유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나주시 과학영농팀의 농업 기상정보시스템 및 유효미생물 이용 교육을 비롯해 농업정책자금 대출 방법, 모니터링단 소개 및 후계농 육성자금 주의사항, 영농기술 노하우 전수, 농업인 단체 소개 및 가입 방법 등을 안내·담부했다.

더운 여름 대숲 속 이열치열, 죽녹원 이색 체험 공간에서

담양군, 죽초액 함유 죽죽체험장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길 조성



담양군이 대표 관광지 죽녹원에 이색 체험공간을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죽녹원 한옥집터에 새로 조성한 죽죽체험장은 대숲 속에서 따뜻한

물에 죽죽을 하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특히 각종 기능성 물질이 함유된 죽초액이 들어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또한 한국의 옛 전래동화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테마로 조성된 '임금님 귀는 당나귀길'은 동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포토존과 더불어 임금님 귀에 소원을 빌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연출해 죽녹원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체험과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힐링공간을 조성해 죽녹원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요금을 2019년 8월 고지분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17년 목표로 제시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64.5%에 맞추기 위해서는 78%를 인상해야 하지만,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0% 인상률을 적용했

다. 군은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추진했고, 19일 화순군의회는 제232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각각

3.0%, 2.9%, 2.9% 인상한다. 8월 고지분부터 가정용의 경우 월 사용량 20을 기준으로 하면, 현행 1대 690원에서 710원으로 인상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했다"며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인상한 만큼 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장흥군, 도시민 유치 위한 초청행사 개최

블루베리 수확현장 · 무산김 주식회사 등 체험

장흥군은 지난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도시민 유치를 위한 초청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인천관광역시와 경기도 구리시에서 온 75명의 도시민들이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1박 2일간 장흥지역을 순회하면서 블루베리 수확 현장, 무산김 주식회사 등 농

어업 생산현장을 방문한다. 체험뿐만 아니라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편백숲 우드랜드, 안중근사



당이 있는 해동사등 주요 관광평소도 견학한다.

장흥=송호빈 기자

함평군 양파농가 시름 던다

함평군이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양파생산 농가를 위해 직접 나섰다.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7일부터 함평군 농협원에조합 공동사업법인과 함께 군청 실과소를 비롯, 경찰서·소방서 등 지역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사랑의 양파 사주기 운동'을 펼쳤다.

올해 전국 양파 재배면적은 지

난해보다 줄었으나, 생육환경이 좋아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게다가 함평은 인접한 무안군과 함께 국내 대표 양파주산지인 품질 민품 양파생산량이 많아 그 피해가 더욱 심했다.

이에 따라 군은 양파 소비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사랑의 양파 사주기 운동'을 전개, 나흘간 총

1819방(988방/10kg, 831방/15kg)을 판매했다.

군은 또 양파 64ha(약 3,750)를 산지폐기 하는 등 양파 가격 안정화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백형규 함평군 친환경농산과장은 "산지폐기, 정부수매, 관료화보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지역양파생산 농가에 힘을 보낼 계획"이라며, "군민들께서도 과잉생산 양파에 대한 소비촉진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장성군, 뮤지컬 '판타스틱' 공연

내달 9일 장성문화예술회관

장성군이 무더운 여름 온 군민이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뮤지컬 공연 '판타스틱'을 준비했다.

장성군은 7월 9일 저녁 7시 장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년 버벌 퍼포먼스(비언어 공연) 국악 뮤지컬 '판타스틱'을 선보인다.

'판타스틱'은 언어의 장벽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비

언어적 표현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객의 연정에 구애 받지 않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연이다.

대금, 가야금, 판소리 등 한국 전통악기 연주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우리 장단에 서양 음악, K-pop댄스 등 다양한 장르를 조화시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연으로 인기가 많다.

공연은 현악가문과 타악가문 사이에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스토리

를 배우들의 코믹한 연기와 화려한 합주 퍼포먼스로 풀어내 가족뿐 아니라 동료, 친구, 연인과 유쾌하게 즐기며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다.

또한 공연 중 배우와 관객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으로 공연의 몰입감과 재미를 더하고, 배우와 관객, 관객과 관객 간의 소통을 통해 단순한 관람이 아닌 관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공연으로 꾸며진다.

공연 예매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장성군 문화시설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예매나 전화(☎061-390-8475, 8476) 또는 방문 예약 모두 가능하다.

